

학생의 시각에서 교사의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학교건축

School Architecture Making Through Student's Eye and Teacher's Heart



이 화 룡 /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학교공간혁신총괄기획가
 Lee, Hwa Ryong / Professor, Kongju National University, Master Planner for School Space Innovation
 hlee@kongju.ac.kr

1. 들어가면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공간혁신사업”은 사용자 참여를 통해 사용자 및 미래교육이 요구하는 학교공간과 건축을 만들고자 한다. 이때 사용자란 학생, 교사, 학교, 지역 주민, 학부모 등이 포함되며, 그 중심에 학생과 교사가 위치한다.

사용자 참여디자인(User Participatory Design)은 디자인 의사결정단계에서 사용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사용자 친화적 디자인을 추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된다. 특히 학교의 경우, 설계과정에서 마주치는 교육적 도전들에 대해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문제 해결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¹⁾.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론을 창출하고, 디자인 품질에 대한 확신과 만족도를 높이며, 지역의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키는 등 장점이 많은 디자인 방법이라 하겠다.

본 글은 공공시설사업에서 사용자 참여의 필요성과 학교건축의 새로운 시각과 태도에 대해 살펴보고, 교육부가 진행 중인 학교공간혁신사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2. 왜 사용자 참여인가?

사용자 참여설계는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디자인 방법이며, 전문가 중심의 획일적인 디자인 가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환으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주민참여 디자인에 대한 연구와 해외사례 소개

등을 통해 시범사업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공공시설사업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는 200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시설사업을 위한 주민참여 디자인, 주민참여 예산제도, 주민참여사업 공모,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왜 이처럼 공공시설사업에 사용자 참여설계가 보편적 과정으로 정착하게 되었을까? 이의 가장 큰 원인은 공공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이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공동의 자산이라는 지역주민의 주인의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잡하고 다양해진 사회적 요구를 소수 전문가의 직관이나 경험에만 의존하기엔 한계가 있다. 20세기의 공공건축물들은 대가(maestro)들에 의해 기념비적 건축물들로 도시를 빛나게 하였다면, 최근의 공공건축은 구성원들이 커뮤니티(community) 활동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동체 참여 디자인 방법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구산동 도서관마을은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여 은평도서관마을협동조합, 주민 동아리, 구산동 주민참여 위원회 등이 주민설명회, 설계협의, 현장 탐방, 마을도서관 활동가 양성 강좌, 마을 주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북 콘서트 등을 통하여 그들만의 마을도서관을 만들어갔다.

이 과정을 통하여 놀라운 마을 공동체 도서관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만약 예전의 방법대로 설계공모를 통해 전문건축가가 설계하였다면 웅장하고 스펙터클(spectacle)한 도서관이 건축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만들어낸

1) Henry Sanoff, Participation in school planning, p.11, 2019.

도서관은 멋진 건축을 짓는 대신에 기존의 주택들을 그대로 두고 건물사이를 골목을 북 갤러리(book gallery)로 조성하는 등 전혀 다른 시각의 마을 도서관을 제시하였다. 예전의 때 묻은 벽돌들은 고단한 삶이 그대로 묻어나고, 전봇대가 있던 자리는 서가가 되어 옛 추억들이 드리워진 장소로 바뀌어 있다.

이는 무언가 새롭고 훌륭한 것을 창조할 것을 강요받는 전문가나 건축가로서는 감히 생각지 못하는 건축 만들기 방법이다. 비록 기념비적 건축물은 아니지만 일상의 삶과 함께하는 따뜻한 도서관을 가지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행복한 일임에 틀림없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좋은 건축(good architecture)이 아닌가? 학교건축도 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좋은 건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구산동 도서관마을 전경



도서관마을 북 갤러리

그림 1. 서울시 구산동 도서관마을 전경 및 북 갤러리

3. 학교건축에 대한 시각과 태도의 변화

우리의 초·중등학교시설은 어떠한가? 최근 교육서비스의 다양한 요구와 학습 환경에 대한 높아진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교실과 복도로 이루어진 천편일률적 공간으로는 학생들의 정서적·심미적 요구 뿐만아니라 미래교육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간들을

담아내지 못함을 교육계 내·외부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원인은 다양하게 진단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건축에 대한 지향점이 공급자 즉 담당공무원 혹은 전문가에게로 향해 있다는 점이다. 즉 학교건축과 관련한 정책형성, 기획, 설계 및 시공 등의 각 의사결정 단계에서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학생과 교사,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은 여전히 수동적 수혜자 입장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 교육서비스 및 교육환경 등에 대한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당공무원 혹은 전문가의 학식과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²⁾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과 경제성의 이유로 공급자 위주 시설행정이 이루어져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지난날 경제성장과 개발시대의 학생수용 위주 학교시설사업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는 학교건축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attitude)가 바뀌어져야 할 시대적 요구가 있다.

사용자참여 학교설계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10년도에 우리 교육시설학회에서 시작하였다. 외국의 사용자 참여설계 사례들을 조사하고 직접 해외 학교와 관련기관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돈암초(2007년), 서울시 은로초(2012년) 등에서 선도 사업 성격으로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학생위주의 사용자 참여설계는 2015년 이후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한 다양한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아닌 가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꾸미고 꿈꾸는 화장실('15-'16년) 사업을 필두로 강원도교육청의 감성디자인교실사업('16-'18년), 서울시교육청의 꿈을 담은 교실사업('16-'18년), 광주시 광산구청의 영풍공모사업('16-'18년), 광주북초등학교 개축사업('17-), 부산시교육청 별별공간사업('17-) 등이다.

이는 학생과 교사들이 주도하여 학교공간을 재구조화하고 교실을 변화시키고자 한 일대 사건이었다. 각 교육청마다 특색있게 추진한 이 사업들은 학교건축과 공간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과 태도를 근본부터 흔드는 계기가 되었다. 건축 전문가가 없이 사용자의 의견과 아이디어만으로 기존 학교에 놀라운 공간을 만들어내고, 즐겁고 살아있는 장소로 재창조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

2) Lippman(2019)은 “전문가의 규범적 이론(normative theories)은 비과학적이며 개인적 가치판단으로 유추된 것으로, 실제 설계단계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공간 속에서 배우고, 놀며, 생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그리고 공간이 어떻게 학습을 증진시키는 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설계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Evidence-based desig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Peter C. Lippman, Wiley, 2019.



통행만으로 이루어지던 복도를 휴식, 소통 및 놀이 공간으로 활성화한 구미 봉곡초등학교 사례



기존의 컴퓨터실을 ICT를 적용한 원격수업, 토론학습 등이 이루어지는 누리방으로 재구조화한 창덕여중 사례

그림 2.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통한 다양한 공간혁신 사례

4. 학생의 시각에서 교사의 마음으로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공간혁신사업은 위에서 열거한 각 교육청에서 진행하였던 공간재구조화사업들이 모태가 된다. 소위 밑에서 위(Bottom-up)로의 정책 형성 방식인 셈이다.

공간혁신사업의 목적은 학교공간을 공동체가 어우어지는 장소로 바꾸어 나가자는데 있다. 학교를 감독과 감시의 공간에서 공감과 소통의 공간으로 바꾸고, 학습공간 위주의 목적적 공간을 휴식, 놀이 등 일상의 삶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가꾸자고 한다. 그리고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학교로 만들어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려고 한다. 이와 함께 첨단 ICT를 활용한 교수·학습 환경, 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학교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만들기에는 사용자 참여설계가 필수적인 기재가 된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이 외국의 사용자 참여설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학교 교육과정과 함께 한다는 점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나 공공 디자이너(master planner) 등이 주도하여 사용자

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공간으로 구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반면에 공간혁신사업의 사용자 참여설계는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이루어지며, 촉진자(facilitator)와 교사는 참여설계를 기획하고, 학생들과 공간체험, 공간교육과 워크숍 등을 실시한다. 이때 학생과 교사는 공간 사용자로서의 역할과 공간 창출자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되며, 촉진자는 디자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공간으로 실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교육청에서 공간(영역) 단위사업들 위주로 추진되고 있지만, 내년부터 개축사업, 그리고 신축사업까지 사용자 참여설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이처럼 공간혁신사업은 공간 재구조화사업을 넘어 증개축, 신축 등 전 학교시설사업에서 학생과 교사가 주인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고자 한다.

참여설계는 그 민주적 절차로 인해 충분한 실천적 타당성을 가지며, 실제 설계에서도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등에 근거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의 학교건축은 공급자 위주에서 교육공동체가 학생의 시각으로 교사의 마음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끝으로 학교공간혁신사업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추진될 수 없으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 교사, 학교, 담당공무원, 지역사회, 설계자, 촉진자, 관계 민간기관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이 필요하다. 교육시설학회도 교육부와 이미 MOU를 체결하여 인천교육청의 공간혁신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앞으로도 참여설계에 대한 연구, 관련 학술대회 및 워크숍 개최, 교사 회원 확충 등을 통해 학회가 사용자 참여설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Armstrong and Stojmirovic(2011), Participate: Designing with user-generated content,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 Clay Spinuzzi(2005), The Methodology of participatory Design, Technical Communication, Vol.52, No.2.
3. Cindy S. Moelis(2002), Lessons from the Chicago Public Schools Design Competition, Schools for cities urban strategies.
4. Peter C. Lippman(2019), Evidence-based desig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Wiley.
5. 이화룡, 조창희(2013), 학교건축 사용자 참여디자인 방법의 국가 간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 제29권 제7호.
6. 조창희, 이화룡(2015), 학교건축 사용자 참여디자인의 효율적 운영 방법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 제22권 1호.